

TDB 경기동향조사(전국) - 2015년 10월 조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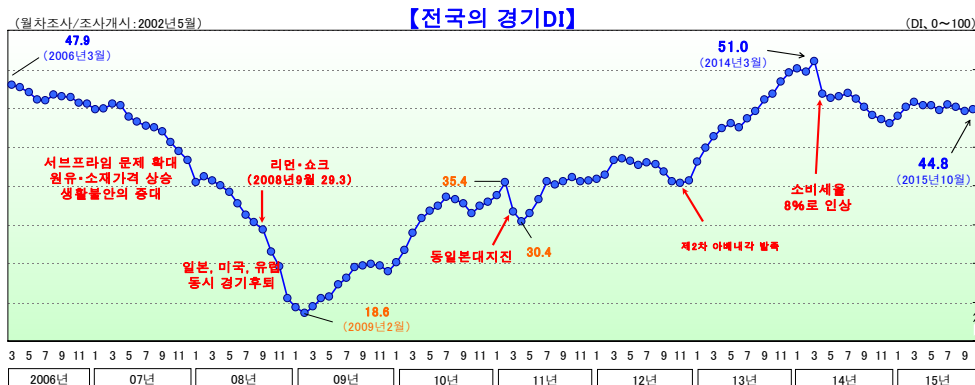
악화경향은 주춤, 업종에 따른 격차확대

~ 신년 이후 개인소비나 주택투자가 기대되나 일진일퇴로 추이할 전망 ~

(조사대상 2 만 3,173 사, 유효회답 1 만 838 사, 회답률 46.8%, 조사개시 2002년 5월)

조사결과 포인트

- 10월의 경기DI는 전월 대비 0.2포인트 증가한 44.8이 되어 3개월만에 개선되었다. 주택착공호수의 증가경향이 내장공사 등 관련업종으로 파급된 한편, 해외경제의 감속에 의한 수출 감소는 경기를 저하시키는 요인이 되었다. 국내경기는 악화경향이 주춤하였으나 업종에 따른 체감경기의 격차가 한층 확대되고 있다. 향후에는 완만한 상승이 예측되나 일진일퇴로 추이할 것으로 보인다.
- 업계별로는 『건설』 『도매』 등 5개 업계가 개선된 한편, 『소매』 『운수·창고』 등 3개 업계가 악화되었다. 주동류의 판매가 견조한 이외에 일본방문 여행객의 증가에 의한 비즈니스 호텔의 개보수(改補修) 등으로 체감경기가 개선된 한편, 실질임금의 증가부진이나 가전제품의 겨울모델 발매를 앞둔 구입보류 등으로 개인소비 관련은 저조하였다.
- 지역별로는 『키타칸토』 나 『췌고쿠』 등 5개 지역이 개선, 『호카이도』 나 『호쿠리쿠』 등 4개 지역이 악화, 『토카이』 가 보합되었다. 『키타칸토』 는 지난달의 집중호우에 의한 영향이 서서히 누그러진 이외에 『췌고쿠』 에서는 설비투자가 견조하여 제조를 중심으로 전체를 상승시켰다. 한편, 『호카이도』 는 공공공사의 감소가 영향을 끼쳐 대폭으로 악화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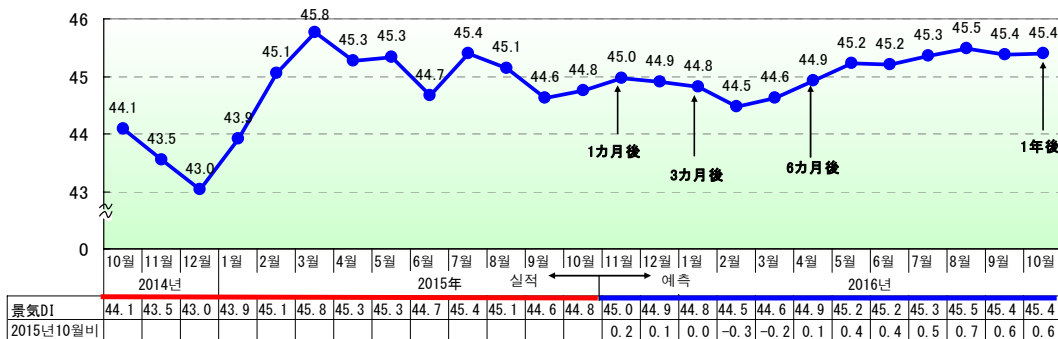
< 2015년 10월의 동향 : 업종에 따른 체감경기의 격차확대 >

2015년 10월의 경기DI는 전월 대비 0.2포인트 증가한 44.8이 되어 3개월만에 개선되었다.

10월은 주택착공호수의 증가경향이 내장공사나 전기배선공사 등 관련업종으로 파급되었다. 또한 지난달까지 경기를 악화시키는 요인이었던 기후가 안정되어 플러스 요인이 되었다. 가솔린이나 경유가격의 하락은 기업의 코스트부담을 억제하는 요인이 되었다. 한편, 국내 자동차생산의 침체로 설비투자의욕의 약세가 지속되는 이외에 5월 이후 공공공사의 감소는 토목관련의 체감경기를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었다. 더욱이 해외경제의 감속이 선명하여 중국이나 ASEAN 등 아시아를 향한 수출이 저조하였다. 국내경기는 기상불안정 등의 악재료가 줄어들어 악화경향은 주춤하였으나 업종에 따른 체감경기의 격차가 한층 확대되고 있다.

< 향후의 전망 : 일진일퇴로 추이 >

중국경제의 장래에 대한 불투명감에 의하여 수출이나 설비투자의 억제가 우려된다. 또한 미국의 7~9월기 성장률의 저조에 더하여 향후의 금리인상에 의한 경제로의 영향을 염려하는 견해가 확산되고 있어 연내 해외경제의 동향에 우려가 남는다. 미국 세일요일의 감소 전망이나 일정수준을 유지하는 에너지수요 등에 의한 원유가격의 상승우려나 인건부족에 의한 인건비의 상승 등 기업의 코스트부담 증가도 악재료가 되겠다. 반면, 신년 이후는 고용자수의 증가와 함께 소득의 증가가 기대되는 이외에 차기 소비세를 인상과 동반한 갑작스런 수요가 2016년 초부터 주택이나 고액의 내구재 등에서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의 국내경기는 신년 이후의 완만한 상승이 예측되나 임금상승 체감이 부족하여 일진일퇴로 추이할 것으로 보인다.



※경기예측DI는, ARIMA모델에 경제통계를 더한 Structural ARIMA모델로 분석.

업계별 : 주택관련 업종이 개선되는 한편, 『도매』 등 개인소비관련은 정체

· 「건설」 『도매』 등 5개 업계가 개선된 한편, 『소매』 『운수·창고』 등 3개 업계가 악화되었다. 주택 착공호수의 증가가 관련 업종의 체감경기를 상승시키고 있다. 반면, 수출관련 업종이 침체된 이외에 실질임금의 증가부진으로 『소매』 등 개인소비관련이 저조하였다.

· 「건설」 (49.5)…전월 대비 0.4포인트 증가. 4개월 연속으로 개선되었다. 주택착공호수의 증가경향이 계속되는 가운데 미장공사나 급배수·위생설비공사, 전기배선공사, 내장공사 등 관련공사가 호조를 띄었다. 또한 간호수요 등의 상승으로 「민간병원, 노후시설 등의 설비투자가 활발」(건축공사)한 상황이 나타나는 등 플러스 재료도 증가하고 있다. 다만 공공공사의 감소경향이 지속되고 있고, 일반 토목건축 공사업이 크게 악화되는 등 7개월 연속으로 50을 하회하고 있다. 또한 이미 주택건축 데이터 위조(改竄)의 영향으로 일반관리비 등의 코스트 부담이 증대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어 완만한 개선에 머무르고 있다.

· 「도매」 (41.5)…동 0.3포인트 증가. 3개월만에 개선되었다. 「건설·가구, 요업·토석제품도매」 (41.3, 동 1.8포인트 증가)는 호조를 띤 주택관련 이외에 일본방문 여행객의 증가로 비즈니스 호텔의 개수 등으로 시멘트도매나 목재·죽재도매, 새시도매 등의 체감경기가 상승하였다. 「섬유·섬유제품·장신구도매」 (37.8, 동 1.3포인트 증가)는 추동의류가 건조하게 추이하며, 할로윈 시장의 확대로 여성·아동복도매나 신발도매 등이 호조를 띄었다. 또한 석유도매나 철물도매가 상승한 「철강·비철금속·광업제품도매」 (38.8, 동 0.3포인트 증가)등 『도매』는 9개 업종 중 6개 업종이 개선되었다.

· 「제조」 (43.3)…동 0.1포인트 증가. 「음식료품·사료제조」 (44.3, 동 0.7포인트 증가)는 고가품이나 가공식품이 호조로 추이하여 생과자제조나 유제품제조, 냉동수산물제품 제조 등이 체감경기를 상승시키고 있다. 또한 재생의료나 의료기기관련의 공격예산 증대로 연구개발이 활발한 의료용품제조나 분석기기제조를 포함한 「정밀기계, 의료기계·기구제조」 (48.6, 동 0.7포인트 증가)등이 개선되었다. 반면, 국내 자동차의 생산대수가 감소한 「수송용 기계·기구제조」 (46.3, 동 2.0포인트 감소)는 3개월 연속으로 악화되었다. 『제조』는 12개 업종 중 5개 업종이 개선된 반면, 전체의 개선폭은 작고 탄력이 약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 「소매」 (41.6)…동 0.6포인트 감소. 2개월 연속으로 악화되었다. 실질임금의 상승이 저조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가전·정보기기소매」 (39.6, 동 5.0포인트 감소)는 iPhone 6s의 수요가 고루 미친 이외에 가전제품의 겨울모델 발매를 앞둔 소비자하의 경향이 드러났다. 원유가격이 약보합을 보이는 가운데 가솔린이나 경유의 판매가격은 하락이 지속되어 주유소나 연료소매를 포함하는 「전문상품소매」(39.2, 동 1.5포인트 감소)가 2개월 연속으로 악화되는 등 『소매』는 9개 업종 중 4개 업종이 악화되었다.

	14년 10월	11월	12월	15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전월비	
농·임·수산	41.8	38.6	39.5	41.3	40.0	44.0	43.7	45.0	41.9	42.9	44.7	44.6	▲ 0.1		
금용	44.9	45.3	45.2	45.1	44.7	48.0	48.1	47.4	49.2	48.1	46.5	46.3	1.0		
건설	51.6	51.0	50.3	50.4	50.4	50.8	49.3	48.6	47.7	48.6	48.8	49.1	49.5	0.4	
부동산	45.2	43.6	44.1	45.1	47.2	48.8	48.8	49.6	49.1	49.8	48.4	48.7	48.7	0.0	
제조	식품료품·사료제조	39.0	36.8	37.5	37.2	39.8	43.1	42.1	44.3	43.1	43.4	43.0	43.6	44.3	0.7
	섬유·섬유제품·장신구제조	39.4	36.8	38.1	36.8	39.7	37.6	40.2	41.7	39.4	39.4	40.2	38.8	39.8	1.0
	건설·가구, 요업·토석제품제조	44.0	44.1	43.3	43.2	41.9	42.1	40.3	40.9	40.3	41.2	41.2	40.9	40.2	▲ 0.7
	철·철·종이·종이가공제품제조	36.7	36.1	36.3	34.8	37.3	39.3	39.8	40.0	39.0	39.7	42.0	40.8	41.1	0.3
	화학·연료	31.5	31.5	31.0	31.8	33.5	34.1	34.6	34.1	33.5	33.7	34.9	34.8	34.8	0.0
	화학제품제조	42.4	42.9	43.3	43.2	44.5	44.6	44.1	44.4	43.9	44.7	45.3	44.4	44.4	0.0
	철강·비철금속·광업	45.3	44.4	42.8	44.8	46.8	45.2	43.9	43.0	42.9	43.6	42.8	41.7	41.4	▲ 0.3
	기계제조	50.5	50.0	48.6	49.6	51.5	52.6	52.5	51.6	51.3	51.9	50.3	47.3	47.9	0.6
	전기·전자제조	46.1	45.9	45.8	47.3	48.4	49.7	47.7	47.3	47.4	47.4	44.8	45.2	45.2	0.0
	수송용기계·기구제조	48.2	48.0	47.7	47.4	50.3	50.4	51.1	47.8	49.7	50.9	50.8	48.3	46.3	▲ 2.0
	정밀기계, 의료기계·기구제조	46.6	45.4	45.0	47.9	48.9	49.2	47.8	49.8	49.4	50.4	51.2	47.9	48.6	0.7
	기타 제조	37.9	38.4	35.2	35.4	38.7	38.7	37.1	40.7	37.8	39.2	37.7	40.0	39.8	▲ 0.2
	전체	43.4	42.9	42.3	43.0	44.6	45.1	44.4	44.5	44.0	44.6	44.2	43.2	43.3	0.1
도매	식품료품도매	39.0	37.1	37.6	38.3	39.7	40.6	42.6	42.9	43.0	44.1	42.7	43.6	43.0	▲ 0.6
	섬유·섬유제품·장신구도매	34.3	30.7	30.2	31.1	32.2	33.3	35.5	37.0	34.8	34.4	34.7	36.5	37.8	1.3
	건설·가구, 요업·토석제품도매	41.0	39.5	39.3	39.0	40.5	40.2	38.2	38.7	38.1	39.8	39.7	39.5	41.3	1.8
	종이·종이·문구·서적도매	32.9	33.5	31.8	33.2	35.1	37.7	37.3	38.1	34.5	37.1	36.5	36.8	36.8	0.0
	화학도매	40.6	40.0	37.8	38.9	41.2	41.8	42.5	43.0	43.1	43.9	42.6	42.3	42.5	0.2
	재생자원도매	37.8	40.4	40.8	39.0	38.5	39.3	39.7	42.3	40.1	35.8	36.0	25.8	29.9	4.1
	철강·비철금속·광업제품도매	43.2	43.8	42.1	43.9	43.5	43.2	41.2	40.3	39.3	40.4	40.3	38.5	38.8	0.3
	기계·기구도매	43.9	43.6	43.2	44.8	46.0	47.3	46.7	46.3	45.1	45.6	45.3	43.6	43.6	0.0
	기타 도매	36.7	37.1	35.1	37.5	38.5	40.7	40.9	41.8	42.0	42.4	41.4	40.8	41.0	0.2
	전체	40.6	40.0	39.1	40.4	41.5	42.5	42.3	42.5	41.7	42.5	41.9	41.2	41.5	0.3
소매	식품료품소매	36.8	34.7	34.5	36.8	38.2	39.4	39.3	41.6	42.7	45.0	44.0	44.5	44.6	0.1
	섬유·섬유제품·장신구소매	36.7	32.0	30.8	30.7	32.3	34.8	38.0	40.2	37.0	38.6	38.7	36.9	40.1	3.2
	의약품·의료장비·의료기기소매	41.1	42.6	38.9	44.6	45.3	46.0	48.1	48.0	48.6	49.3	48.7	46.7	48.6	1.9
	가구류소매	22.7	27.3	26.4	28.8	33.3	27.8	35.0	40.0	43.3	41.7	41.7	42.9	42.9	0.0
	가전·정보기기소매	36.2	36.0	34.3	39.3	39.0	43.2	38.4	41.5	40.6	38.9	38.3	44.6	39.6	▲ 5.0
	자동차·동·부품소매	30.1	31.8	28.7	37.8	40.7	38.8	36.5	39.9	37.2	38.3	38.7	38.6	39.9	1.3
	전문상품소매	36.3	36.0	39.2	41.4	43.7	42.3	39.4	40.5	38.0	39.9	41.6	40.7	39.2	▲ 1.5
	전문상품소매	41.2	39.1	40.5	42.6	41.0	40.6	47.1	49.7	48.1	48.8	49.0	47.3	46.5	▲ 0.8
	기타 소매	40.0	40.0	41.7	33.3	36.7	38.9	41.7	36.1	43.3	35.7	44.4	44.4	36.1	▲ 8.3
	전체	36.3	35.5	35.9	39.1	40.5	40.5	40.2	42.1	40.7	41.9	42.4	42.2	41.6	▲ 0.6
운수·창고	43.7	44.8	43.8	43.7	44.8	44.9	44.8	44.8	42.6	44.4	44.9	45.1	44.7	▲ 0.4	
서비스	음식점	42.6	45.1	39.9	44.6	45.2	49.2	50.0	49.6	48.3	47.4	51.3	45.3	49.2	3.9
	전기통신	46.3	48.1	50.0	56.3	53.7	48.3	54.2	53.7	50.0	47.0	53.0	59.3	57.6	▲ 1.7
	전기·가스·수도·열공급	46.3	43.8	44.4	50.0	50.0	48.3	55.0	53.7	53.0	50.0	51.9	56.7	55.0	▲ 1.7
	리스·임대	49.7	49.9	49.1	50.9	50.0	49.3	49.6	47.9	49.9	49.9	49.9	48.0	48.0	0.0
	호텔·호텔	46.3	47.0	47.6	47.7	49.5	48.6	51.4	53.1	54.2	59.2	59.0	58.3	61.4	3.1
	오락서비스	39.5	36.4	36.5	34.4	36.7	40.6	38.7	40.2	37.9	37.3	38.0	37.9	38.0	0.1
	방송	45.2	43.3	41.7	44.4	40.0	45.6	47.9	45.6	46.1	49.1	46.1	41.7	45.1	3.4
	엔터테인먼트·경매·경매	45.8	43.1	42.6	44.6	46.9	47.2	47.8	48.1	47.4	47.6	47.4	46.0	46.1	0.1
	광고관련	38.6	38.7	38.8	38.8	39.3	42.1	42.2	41.1	41.0	39.8	40.7	40.8	40.7	▲ 0.1
	정보서비스	51.4	51.6	52.2	53.5	54.6	56.3	56.3	55.3	55.4	56.4	55.8	55.5	56.0	0.5
	엔터테인먼트·소매	55.6	53.9	54.0	55.7	57.5	56.7	55.5	56.2	56.3	54.4	55.0	54.2	54.7	0.5
	전문서비스	50.7	50.7	50.3	50.8	51.4	53.0	51.0	51.7	50.9	52.0	51.4	51.5	49.0	▲ 2.5
	의료·복지·보건위생	46.2	45.0	44.1	44.7	45.7	45.3	46.1	46.3	43.3	43.3	43.6	42.8	42.3	▲ 0.5
	교육서비스	42.4	41.7	39.9	40.5	40.2	39.5	41.2	41.1	44.4	40.6	44.1	42.1	45.0	2.9
	기타 서비스	44.9	45.2	45.0	47.4	48.1	47.2	46.1	46.8	49.5	50.9	48.5	49.3	49.2	▲ 0.1
	전체	47.7	47.3	47.2	48.3	49.2	50.3	50.1	49.9	49.7	50.4	50.1	49.6	49.6	0.0
기타	40.6	37.7	41.5	37.3	41.7	42.0	43.2	40.2	41.9	42.6	40.7	41.4	42.3	0.9	
격차 (10개업종별 [기타] 제외)	15.3	15.5	14.4	11.3	10.4	10.3	9.9	7.8	9.0	8.5	8.2	8.4	8.1	▲ 0.3	
중국진출	45.5	45.3	44.7	45.6	47.4	47.8	48.2	47.9	47.0	47.5	46.9	45.6	45.6	0.0	
태양광발전	47.7	46.5	46.0	45.7	47.0	48.0	46.0	47.2	44.5	47.8	46.5	45.0	44.7	▲ 0.3	

※색이 없는 부분은 전월 대비 개선 또는 증가, 황색은 전월 대비 보합, 청색은 전월 대비 악화 또는 감소를 나타냄.

※「태양광발전」은 셀·모듈, 부품·재료, 제조장치의 각제조회사, 에너지, 판매·시공을 포함함.

규모별 : 「중소기업」이 주택관련 공사의 호조로 3개월 만에 개선

- 「대기업」이 48.4(전월 대비 0.2포인트 증가), 「중소기업」이 43.7(동 0.1포인트 증가), 「소규모기업」이 43.2(전월과 같은 수준)이 되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소폭 개선되었다. 「대기업」은 일·미 주가의 상승이 호재료가 된 「금융」, 견조한 국내여행이나 신차효과가 드러난 「운수·창고」 등 4개 업계가 개선되었다. 「중소기업」은 3개월 만에 개선되었다. 「건설」이 주택착공호수의 증가로 호조를 띄었으나 개선은 3개 업계에 머물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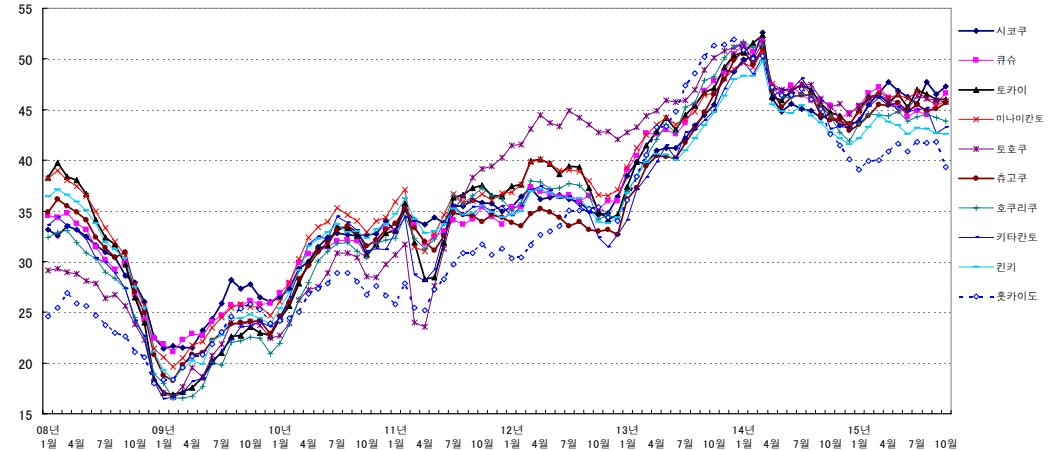
	14년 10월	11월	12월	15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전월비
대기업	47.5	46.9	46.6	47.1	48.0	48.6	48.9	49.2	48.4	48.8	48.9	48.2	48.4	0.2
중소기업	43.1	42.6	42.0	43.0	44.2	45.0	44.3	44.3	43.6	44.5	44.1	43.6	43.7	0.1
(그 중 소규모기업)	42.5	42.1	41.6	42.3	43.4	44.3	43.1	43.2	43.1	43.4	43.2	43.2	43.2	0.0
격차 (대기업-중소기업)	4.4	4.3	4.6	4.1	3.8	3.6	4.6	4.9	4.8	4.3	4.8	4.6	4.7	

※색이 없는 부분은 전월 대비 개선 또는 증가, 황색은 전월 대비 보합, 청색은 전월 대비 악화 또는 감소를 나타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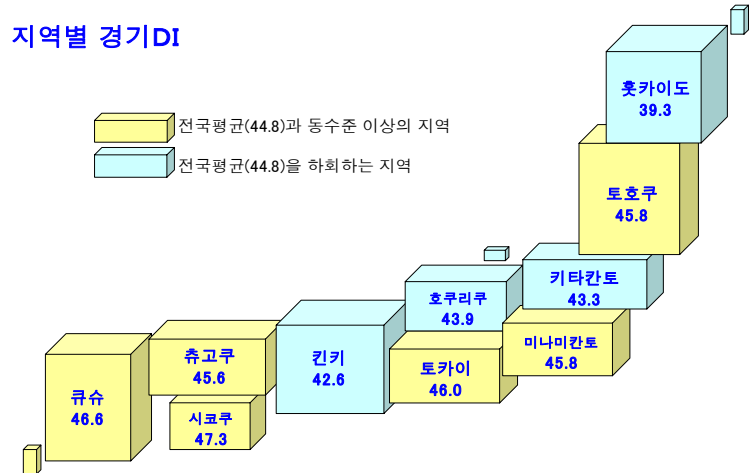
지역별 : 10개 지역 중 5개 지역이 개선

- 「키타칸토」나 「츄고쿠」 등 5개 지역이 개선, 「홋카이도」나 「호쿠리쿠」 등 4개 지역이 악화, 「토카이」가 보합이었다. 「키타칸토」는 지난달 집중호우의 영향이 서서히 누그러졌다. 반면, 「홋카이도」는 공공공사의 감소가 건설이나 관련된 리스업까지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었다.
- 「키타칸토」(43.3)…전월 대비 0.7포인트 증가. 2개월만에 개선되었다. 지난달의 집중호우에 의한 영향이 누그러져 지역 내 6개 현 중 4개 현이 개선되었다. 다만 하천의 결피나 침수피해가 걱정했던 이바라기현은 2개월 연속으로 악화되었다. 개인관광객이 서서히 회복되는 가운데 「여관·호텔」이나 「리스·임대」등 「서비스」가 2개월만에 개선되었다. 「건설」이나 「제조」, 「도매」 등 10개 업계 중 4개 업계가 개선되어 전체의 기업규모가 확대되었다.
- 「츄고쿠」(45.6)…동 0.6포인트 증가. 2개월 연속으로 개선되었다. 설비투자가 화확품제조나 전기 기계제조에서 성장기업을 중심으로 견조하게 추이한 이외에 「소매」나 「서비스」 등 개인소비관련도 일정수준을 유지하였으며, 「츄고쿠」는 10개 업계 중 7개 업계가 개선되었다. 다만 규모별로는 「대기업」(동 1.8포인트 증가)이 크게 개선된 반면, 「중소기업」(동 0.3포인트 증가)이나 「소규모기업」(동 0.9포인트 감소)은 저조하며, 대기업이 개선을 견인하였다.
- 「홋카이도」(39.3)…동 2.5포인트 감소. 4개월만에 악화되었다. 사료가격의 강보합이나 주택건축의 감소가 영향을 끼친 2014년 10월(동 2.5포인트 감소) 이래로 대폭 악화되었다. 공공공사가 7개월 연속으로 감소하는 가운데 건축확인증수가 급감하는 지역도 존재하는 등 「건축」이 크게 악화되었다. 또한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TPP)의 대략적 합의는 농림수산업을 중심으로하는 불안감의 고조에 의하여 체감경기를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었다.

地域別グラフ(2008年1月からの月別推移)



지역별 경기DI



	14년 10월	11월	12월	15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전월비
홋카이도	42.5	41.5	40.1	39.1	39.9	40.0	40.8	41.6	40.9	41.8	41.8	41.8	39.3	▲ 2.5
토호쿠	45.2	45.6	44.5	45.4	46.0	46.5	46.0	44.9	45.0	46.3	46.1	45.9	45.8	▲ 0.1
키타칸토	43.1	43.4	43.2	44.1	45.3	46.2	45.4	45.2	44.8	45.0	45.2	42.6	43.3	0.7
미나미칸토	44.4	43.8	43.6	44.7	46.0	46.8	46.2	46.5	46.1	46.8	46.1	45.4	45.8	0.4
호쿠리쿠	44.3	42.8	41.9	43.6	44.6	44.4	44.4	44.8	43.8	44.3	44.6	44.2	43.9	▲ 0.3
토카이	44.7	44.4	43.4	45.0	46.3	46.4	45.6	46.5	45.3	46.9	46.5	46.0	46.0	0.0
킨키	42.7	42.1	41.5	42.2	43.2	44.5	43.7	43.4	42.6	43.2	43.1	42.7	42.6	▲ 0.1
츄고쿠	43.9	44.0	42.9	43.6	44.4	45.5	45.4	45.6	44.8	45.5	44.9	45.0	45.6	0.6
시코쿠	44.5	43.5	43.6	43.8	45.5	46.6	47.7	46.9	46.3	45.6	47.7	46.5	47.3	0.8
큐슈	45.4	44.2	44.7	45.3	46.6	47.2	46.2	45.6	44.3	44.9	44.5	45.7	46.6	0.9
격차	2.9	4.1	4.6	6.3	6.7	7.2	6.9	5.3	5.4	5.1	5.9	4.7	8.0	

※색이 없는 부분은 전월 대비 개선 또는 증가, 황색은 전월 대비 보합, 청색은 전월 대비 악화 또는 감소를 나타냄.